

Open-Ended

2호

[óupən-éndid]

정해진 답이 없는 자유로이 생각대로 대답할 수 있는
같은 것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축용어

행동하는 일상, 힘아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18대 총여학생회

<http://yonsei.ac.kr/~ysfem> empower@yonsei.ac.kr

'여성노동자'로서의 나를 그려보는 일은 '젊은 날에 꿈꾸는 희망찬 미래'와는 좀 거리가 있다. 여성의 취업 절차가 '100% 면접'이라는 인터넷 유언나 같은 자격조건을 가진 남자동기들에 비해 취업이 유난히 안 되는 여자친구들의 한숨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온갖 성차별적인 상황을 참아 넘기는 여자선배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여성의 노동에 대한 틀을 그토록 오랫동안 탄탄히 짜놓은 가부장제 역사를 돌아보게 된다. 여성과 사회 진출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성노동'에 대한 제도나 정책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요구안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항상 '문제이긴 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로 취급된다.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여성주의적 담론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으나,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이러한 담론을 고려할 확률은 몇 퍼센트인지 생각조차 해보고 싶지 않다.

굳이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꺼내어보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미래의 노동을 계획하는 우리에게도 나를 존재한다. 우선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보람이 충분히 느껴지든지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람과 대가가 모두 충족되면 금상첨화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에서는 '금상첨화'까지 나아갈 길이 거의 없다.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최고임금이 되어버리는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으로 인해 생존권을 확보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경비원으로 일하는 남성들과 비슷한 학력에 더 힘든 일을 하면서 월급은 훨씬 적게 받고 있는 청소용역 여성들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이다. 육아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결코 낮지 않은 진입장벽을 통과하고 전문성을 살려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 여성들을 교육자로 대우하지 않고 '여자를 다 하는 예보기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소위 '여성의 일'에 대한 평가절하가 난무하는 가부장 사회의 실상을 보여준다.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예비인력'인 여학생들에게도 이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과반 행사에서 취사나 설거지 등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일들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딸을 끌어붙이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다. 결혼을 취업과 동급으로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여성에게만 존재한다. 노동정의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시급한 문제들은 항상 협상타결의 마지막 판에서 밀려나온다. 직장 내 성희롱은 많은 경우 직장 내의 위계 관계를 빌미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바로 그 '위계' 때문에 도리어 피해자를 해고시킬 수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 '여성이 노동을 한다는 것이 왜 이리도 험난한지'를 풀어볼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동시에 '왜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노동자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좀처럼 착 달라붙지 않고 언제나 마찰력이라곤 없는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기존의 가부장적인 '노동자' 상과 여성이라는 단어의 결합에서 벗어나 '여성노동자'라는 정체성의 밑그림을 그려온 용감한 언니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짧은 사유에 힘을 주었다. 이제 가부장적인 노동기준의 두꺼운 얼음을 깨고, 그 안에서 힘이 넘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꺼내 올려보자. 이것은 여성노동자라는 정체성이 '여성'과 '노동자' 사이의 줄타기를 요구하는 가부장 사회의 판을 뒤집고, 여성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이다.

by_ 들레

내공 충전 중 무이하게 할 말 다하기 힘들다



특집 여성노동

'여성'과 '노동자'의 줄타기를 뒤엎다

Contents

- 2 [특집] 노동하는 여성, In 'his' sweet home
[특집] 그냥 '취직' 하고 살고요?
- 3 [특집] 여성주의적으로, 그리고 계급적으로
'여성노동'을 사유한다는 것
- 4 [특집] 영화 '싱글즈'에서 우리의 맞쟁이 동미 언니는...
월경공결제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 5 [좌담] 월경의 수다를許하다.
- 6 [서평] 내가 혼자아 아닌 그 곳, <언니네 방>
[후기] 여성주의로 모인 그녀들의 내공쌓기
- 7 [영화평] 여성영화제 관람기 <침묵에 대한 의문>
[후기] <공포와 성의 정치 국가안보론>, 유쾌한 뒤집기
[강연] "저는 동성애자를 인정합니다" 라는 권력
- 8 [자치규약] '그들'만의 놀이에서 벗어나기
'모두가 즐거운' 대동제를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요



특집 여성노동, '여성'과 '노동자'의 줄타기를 뒤엎다

노동하는 여성 in 'his' sweet home

'집에서 놀면서' 일하는 그녀들

여성은 언제나 일을 해왔다.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고, 아이를 낳고, 길렀다. 하지만, 그 일은 '노동'이라고 인식되지도 않았고,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았다. 여성은 언제나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노동' 존재로 평가되었다. 그것은 여성이란 존재가 가사노동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가사 노동과 재생산 노동을 '여성성', '모성'의 발로, 즉 '본능적' 노동이라고 보는 가부장제 사회의 시각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노동을 비가시화시키고 있다.

집은 누구에게 '쉬는 공간' 인가?

가사노동을 '노동'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는, 여성의 노동 공간인 집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라고 여기는 남성중심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가부장제 사회의 시각은 여성이 늘 '쉬는 공간'에 존재한다는 통념을 늘어놓지만,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성의 의무인 상황에서, 여성에게 휴식 공간은 존재할 수 없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위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도, 집은 남성에게만 쉬는 공간일 뿐, 여성에게는 또 다른 일터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에게 '쉬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쉽게 '너 먹는 김에 밥 차리고, 니 빨래하는 김에 더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며, 가사노동을 폄하하는 말들을



www.woodstockny.org

쉽게 주위에서 들을 수 있지만, 실상 그녀들은 자신을 위해 일을 하지는 않는다. 여성들의 가사 노동의 기준이 이미, 남편과 자식 등의 타인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주체도, 수혜자도 여성이 아니다. 가사 노동은 어머니, 아내, 며느리가 남편, 자식들의 '편안한' 집을 위해 하는 '희생' 일 뿐이다.

'희생'을 핑계로 한 대가 없는 노동

'편안한' 쉴 수 있는 집은 여성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대부분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희생으로서 유지된다고 믿고 있다. '어머니/아내의 헌신적 희생'은 가부

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이런 노동을 무임전가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희생은 '남이나 어떤 일을 위하여' 제 몸이나 재물을 따위 귀중한 것을 바침'을 뜻한다. 즉, 여성은 '가족'이라는 집단의 안녕을 위해, 그 자신의 노동력을 '바치면' 것이다.

'돈을 버는 아버지'와 '집안일을 하는 어머니'가 존재하는 가정 내에서 당연히 아버지가 받는 임금은 두 사람의 몫이다. 하지만 가부장제 사회는 가사노동을 여성의 '희생'이라고 칭하면서, 그녀들이 가정 내에서의 일정한 경제적 지위를 얻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벌어들인 '주' 돈으로 집에서 '노동' 사람이 되어버리며, 정당한 보수의 획득에 대한 인식을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노동하는' 여성을 위해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에게 끊임없이 가사노동을 요구하면서도, 그것을 '여성의 의무', '희생'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여성이 '노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그녀들에게는 정당한 권리와 대가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주체성을 박탈당한다. 이제 가사노동의 '노동'에 집중해야 한다. 여성에게만 집중된, 그리고 평가되지 못한 '노동'이 얼마나 여성에게 억압적인지를 인지하고, 그녀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by_ 수석어 있는, 상어

그냥, '취직' 하고 싶다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대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결혼을 앞둔 친구. 스물다섯을 넘기는 친구들의 모습은 제각각이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이니만큼 각자 그 동안 있었던 일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수다가 지칠 줄 모르고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의 방향은 결혼 시기 때문에 고민하는 대학원생 친구의 상황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을 하게 되면서 예정했던 결혼 시기를 뒤로 미루어야 하는데, 결혼 후에 직장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방 남성에게 졸업논문은 이유로 미루자고 하기도 미안한 모양이었다. 물론 나는 결혼 후에, 그것도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을 신혼 때 논문을 쓰기는 어려울 테니 논문을 마치고 졸업하는 편이 후회가 없을 거라고 침을 뱉으며 설득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문득 입을 열었다. "그냥 취직해도 되잖아? 나도 취직이나 하고 싶다."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던 '취직'에 대한 심란함이 바로 이 글의 원동력이다. 안타깝게도 '취직'이라는 말은 대부분, 아니 항상 여성들을 향해 쓰인다. '취업'과 '시집'의 발음과 뜻을 절묘하게 결합한 이 단어는, 여성노동 문제에 대한 각종 상황을 종합해서 드러내주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 단어는 집에서 쉬지 않고 '일' 하시는 어머니와 그 일을 대물림 받는 딸, TV 드라마 남성캐릭터들의 전유물인 '너는 내가 책임질 테니 나랑 결혼하자' 따위의 대사들, '커서 시집 잘 가야하는' 예

비신부로서의 자세를 주입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여중·고 시절 등등의 온갖 경험을 한 번에 꿰어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경험들은 가사노동을 통해 생산해내는 경제적 효과를 철저히 무시하고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남성노동자'의 노동을 표준으로 삼는 가부장적 사회의 기준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노동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정체화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으며 소위 '여성의 일'로 취급되는 각종 무상노동을 강요받는 여성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성 개인의 능력 또는 의지 부족'으로 포장된다. 그래서 '취직'하는 여성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립심이 없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오래 한 비혼 여성도 가정을 꾸리는 사회적 의무를 외면하는 이기적 선택이라고 비난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여성이 아버지의 가정에서 남편의 가정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을 결혼의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 자신의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을 용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여성에게 '취직'은 결코 '취업'과 나란히 놓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결혼 후 상대방 남성의 수입을 가지고 살림을 꾸리는 것이 그 여성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거의 평생 동안 가사 노동에 힘을 쏟느라 경제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을 갖지 못한 여성들이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여성가장이 되었을 때 빈곤 문제를 피하기 어렵고, 결혼 생활 안에서 억압을

겪는 여성들 역시 가족의 노동재생산을 위해 수고한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여성의 노동을 온전히 여성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가부장 사회의 여성착취는 빈곤가구의 반 이상이 여성가장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최저임금문제의 최전선에 서있는 이들이 여성이라는 현실, 여성이 버는 돈을 노리는 가부장적 폭력·협박·갈취 범죄 등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취직이 안 되면 '취직'하면 된다는 말은 여성의 노동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이다.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 후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둘러싼 가부장적 규범과 제도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영역에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가를 버는 것이 왜 누구에게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이고, 누구에게는 결혼을 앞두면 한번쯤 고려해 보아야 하는 일인지 되묻고, 지금까지 여성이 해왔던 일들은 어떻게 규정되어왔으며, 그 대가는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어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여성의 노동을 둘러싼 가부장적 이야기들을 걷어내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노동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펴뜨려 보자. '취직'이라는 단어가 고리를 감추고 '노동할 권리'가 여성에게 온전하게 주어지는 세상을 위해, 좀 더 힘나하게, 그러나 즐겁게 살아보자.

by_ 들레

내공 충전 중. 우아하게 할 말 다하기 힘들다이다

여성주의적으로, 그리고 계급적으로 [여성노동]을 사유한다는 것

스스로를 유물론자이면서 페미니스트라고 정의하고 있는 나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 막연하게나마 '운동'이라는 것이 하고 싶었다. '학술해야 할 이혼도, 싸워야 할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 아실프고 무기력한 세대였지만, 그것이 단순히 '차별하게 살고 싶다'는 절없는 욕망이었든, 90년대 선풍들이 남겨놓았던 '좌파 소아병'이었던 간에, 대학 사회의 개인주의적 침장에 끊임없이 조소를 보내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운동권'이라고 부르기에도 어딘가 민망한, 그런 어실픈 존재였던 것 같다.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김규환의 '그 페미니즘'을 먼저 읽게 되었고,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한 이후로도 계속 '나는 부르주아 페미니스트인가?'라는, 어찌 보면 무의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한편에선 과거 학생운동의 문제의식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고, 어느 순간 '발전지'라는 해석 불가능한 언어가 유행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2006년의 대학 사회에서, 여성주의자이면서 유물론자라는 이중의 정체성을 조율하는 버전을 극복해야 한다는, 어쩌면 지극히도 개인적인 욕망에서 이 글을 시작하게 된 것 같다.

'그 페미니스트'가 '그 진보'에게 묻는다

최보은의 박근혜 지지 논쟁, 김규환과 손석춘의 '부르주아 페미니즘 비판' 논쟁 이후 심화된 여성주의 운동 진영과 한국 사회 진보의 갈등은 이제 오늘의 이야기거리가 아니다. B급 좌파라 불리지만 대중성은 따지고 보면 A급인 김규환은 '그 페미니즘'이 '인간해방 운동'의 보편성을 거스르며, 모든 사회적 억압의 출발점인 계급문제에 대해 정답이 없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재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진보'가 말하는 '인간해방'이란 어떤 대동단결이라는, 이질적인 구호 속에, 여성 문제는 과연 그 '해방'의 범주 속에 포함되었는가, 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이 독자성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여성 문제를 전체 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여성주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에게서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전체 운동의 하위 범주로서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시각, 운동 문화의 가부장성은 정책보다 견고한 것이 사실이다. 노동 해방이 되면 가부장제가 철폐되리라는 낙관관점, 여성 문제를 자본주의적 모순의 한 형태로만 규정하려는 입장들이 여전한 가운데, 진보 진영이 말하는 여성 억압에 대한 통의는 하나의 생색 대기식의 게스처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운동 문화의 남성 중심성을 이해는 바꾸어야 한다고 말들은 참 많지만, 여전히 문제제기는 일회적인 것에 그칠 뿐, 상황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화 내 성폭력 사건은 조직의 위상에 타격을 주지 않는 한에서 그것이 성폭력이라고 '인정'할 뿐이고, 청소년의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동지'가 아닌 '어머니'일 뿐이다. 어디 나쁜이겠는가. 집회 현장에서 남성노동자들에게 '어디 젊은 여자가 담배를 피우냐고 비난 받았던 것이, 동지는 간데없고, 노동 '현재'의 것만 남아있다면, 그런 기분을 경험한 것이.

물론 그 수많은 진보 남성들의 지적대로 섹스&시티의 여성들과 노동 계급의 여성들은 다른 현실에 처해있다. 한 친구의 언급대로, 캐리와 시만다 같은 여성들은 몇 백 불파리 구두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지만,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끊임없는 가사 노동이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적 여성이나 사무직 여성 모두가 직장 내 성폭력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부르주아 여성'이라고 해서, 가정 폭력이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무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페미니즘에 있어서 먼저 성찰해야 하는 것은, 여성의 비정규직의 현실을 들어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라며 분노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나 민족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철폐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아닐까.

그들의 '노동'에 여성은 존재하는가

IMF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된지도,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특히나 비정규직의 70%에 달한다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노동 운동 안에서조차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규직 남성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자본 및 국가의 논리 속에서 가장 손쉽게 채용하고, 또 해고 되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이다. 정부의 실업 대책 역시 사실상 남성 위주로 짜여있는 가운데, 성별 분업 논리와 가족 임금제를 이용한 정부의 실업을 낮추기 전략에 가장 손쉽게 해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흔히 '가정'들의 실직은 늘들의 대상이 되고 가정 파괴 등등의 이유를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해고는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해고 후 '가정으로 돌아가', 원래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보살핌 노동을 하는 것을 마치 모성에 따라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보편적인 것이다. 동시에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과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을 명확하게 분리하려는 인식은, 노동력 재생산과 유자에 필수적인 무급노동에 대한 철저한 무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노동의 개념을 자본/임노동의 관계로만 바라보려는 기존의 맑스주의 이론의 한계를 보여준다. 과연 말시즘이 이야기 하고 있는 생산 영역에서의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로, 여성에 대한 억압을 충분히 설명해 낼 수 있을까. 노동자의 위치로서의 자본에 의한 착취



뿐만이 아니라, 고정된 성역할로 인한 재생산 노동의 무기화와 속에서의 남성 가부장적 착취 또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 남성들이 시장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이라고 불려왔던 가정에 있어서도 여성을 억압함으로써 혜택을 누려왔다는 점이며, 여성 문제에 대한 이러한 계급 이론의 공백이, 결국 그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자본의 논리와 결과적으로 머뭇거리고 보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억압의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만으로 설명하고 슬그머니 회피해버리는 좌파들의 입장이 견고할 때, 그들이 말하는 말시즘은 말 그대로 '망상적'이 되어버릴 뿐이다.

여성주의적으로, 그리고 계급적으로 '여성 노동'을 사유한다는 것

노동, 계급 문제에 상반된 태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흔히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이중의 착취, 그 속에서의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여성 억압을 자본주의와 하위적인 모순의 하나로 여기는 환원론적 인식 속에서 한계점은 여전히 남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실재하고 있다는 것.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두 가지 억압체제가 분명히 다른 역사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여성 노동을 바라보는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유물론적인 관점과 달리, 여성억압에 있어서는 '가부장제'라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기존의 좌파들은 해석해 왔고, 이는 곧 다시 '모든 억압은 계급 문제에서 출발한다'라는 입장으로, '성별화된 계급'으로서의 페미니즘을 무시시켜 왔던 것이다.

이는 운동의 영역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남성과 조합원 증원의 노동 운동이 위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를 일차적으로 희생양으로 삼는 관성, 기밀 누출기를 잡아야 한다면 '생계를 책임질 필요가 없는' 여성이 가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자본의 논리와 딱히 다를 것이 없는 가족임금제의 논리를 그대로 노동운동에 담습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파견 근로제, 일용직 여성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난 이후로도,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여성 노동에 관련한 문제는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운동 사회의 하나의 이슈처럼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노동조합의 가부장성을 비판하며 여성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방안이 제출되어 왔지만, 조합 내의 여성부/여성국을 두는 방안 정도로 여성 문제를 특정 부서의 문제로 국한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언제나 '특수한 문제'로서의 여성 문제보다는 '전체 노동자'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해왔지만, 그렇다면 과연 '전체 노동자'란 누구인지, 왜 여성은 그 '전체'에서 제외되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노동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과 노동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생산을 중심으로 한 좌파의 협소한 노동의 개념과 운동사회의 가부장성이 그대로일 때, 성별화된 사회에서의 또 다른 계급 모순은 사라져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필요한 것은 여성 노동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이고 입시적인 해결 모색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문제 설정 자체의 전환일 것이며, 노동이나 계급의 개념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구성일 것이다. 모두가 중시해야 할 '노동 현재'들의 경제 운동 속에 여성 노동이 자본주의적 모순의 한 가지 하위 형태로,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고려해야 할' 문제뿐만 아니라 전다면, 여지없이 종래의 관행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모순뿐만 아니라 성별화된 계급 모순이 실재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 해방을 위한 노동운동'이 그 자체로 영웅 모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남 모든 노동자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단순한 슬로건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 노동과 계급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재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by, 아무도

그래도 언젠가는 끝나리라는 믿음

참고자료

《여성주의, 최후의 새로운 싸움》, 전희경 / 《또 다른 선언》, '맑스주의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주장한다', beyond

좌담

월경의 수다를許하다

참가한 사람 둘레, 상어, 아무도, 아이서, 코알, 초원, 로라
정리한 사람 상어

친구들끼리 소곤소곤, 알음알음 모두 알고 있었지만, 풍풍 숨겨놓아야만 했던 이야기들을 7명의 여자친구들이 모여서 물어보았습니다. 첫 경험에서 했던 옷을 참지 못할 엉뚱한 행동들, 이상하게 부끄럽다고만 생각했던 일들, 생리 혈이 묻은 팬티를 처리하는 방법까지! 월경을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해서 생긴 일들. 월경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판을 열었습니다. 다들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보다 더 재미있는 일들을 당신은 겪지 않았나요?

부끄럽거나, 아니면 몰랐거나

둘레 어릴 때 비치에 생리 혈을 진짜 많이 흘렸어. 근데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생리를 시작해서, 친구들 중에 월경을 하는 애들이 거의 없었거든. 그래서 체육복에 생리 혈이 묻어도 애들이 모르니까, 그냥 몰감이야~ 그렇게 말했어. 당당하게.

코알 근데 생리 혈 묻는 것은 여자들 사이에서도 터부시 되는 것 같아. 난 여고 다닐 때도 막 생리 혈이 묻으면 화장실 갈 때 민망해서 복도 벽에 엉덩이 붙이고 갔어.

둘레 언제 월경 처음 했느냐는 질문도 막 부끄러워하고.

코알 생리대 쓰는 것도 엄마가 개인적으로 알려주잖아.

아이서 나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영호실에서 생리대 받아 가잖아. 그러면 소형 중형 대형으로 주기에, 그게 엉덩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 알았어.

둘레 근데 관련은 있는 것 같아. 난 마지막 날에는 팬티 라이너를 사용한다는 애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개가 정말 마른 애였거든.

코알 생리대 쓰는 법 가르쳐줘야 하는 거 아냐?

아무도 성교육 시간에 비디오로 보여주잖아.

둘레 근데 쓰는 법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냥 막 셀 때 있잖아. 처음에 진짜 난감했어. 사용할 줄 모르는 건 아닌데, 막 생리 혈이 었나고.

상어 언제 갈아야 할지 몰라서 생리대를 엄청 많이 썼어. 하루에 10개 넘게. 어느 날 엄마가 생리대를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느냐고 해서 그때 알았어.

둘레 나랑 반대였구나.

코알 난 문자야자 같고 그랬어.

아무도 어렸을 때 나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생리가 더럽다고 생각했어. 샤워하고 나와서 5분도 안 되서 묻으면 정말 싫었어. 난 샤워해서 깨끗한데 애는 왜 묻은 거야.

둘레 그거 진짜 싫은데. 샤워하고 나왔는데, 생리 혈이 바닥에 똑 떨어지는 것.

(모두 웃음)

로라 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생리 혈이 막 새는데 생리대는 없고, 학교에 양호실도 없고, 일찍 시작해서 생리대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없고, 너무 철철 흐르고 옷에 묻어서 가방 위에 있었어. 의자에 묻으니까 수치심을 느꼈던 거야. 그리고 하교 길에 집까지 데려다 주던 친구네 아빠가 놓고 가라고 하는데 생리 혈이 새서 못 간다는 이야기를 못한 거야. 결국 친구 집에서 놀다가, 집에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차에 그냥 탈까 몰라난 거야. 그리고 가는 길에 시트에 생리 혈이 묻어버렸어. 어렸을 때는 정말 생리 혈이 많이 새서 수치심으로 다가왔어. 어렸을 때 시작해서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 생리대를 하루에 하나씩 쓰는 건 줄 알았거든.

생리하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어.

아이서 초등학교 4학년때 사촌 동생이 나를 몰래 끌고

가더니 귀에다 대고 '언니 근데 생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거야. 엄마한테도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둘레 친구들이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나 보네.

코알 나도 생리를 몰라서 중학교 1학년 여름 때 수련회 때 화장실에 가니까 뭐가 까만 게 묻어 있어서 팬티를 버렸어. 그리고 그 이후로 안 나왔는데 겨울에 또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때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알았어.

아이서 그럼 그게 초경이 맞아? 질 주름 파열은 아니고?

아무도 나도 초경할 때 막 그 때만 꽤 나왔어. 근데 3개월 이후부터 고백하듯 생리하기 시작했어.

둘레 근데 지금도 가끔 생리 중 아닐 때 생리 혈 나올 때 있었어. 미리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코알 그때는 생리인지도 몰라서, 너무 놀랐어.

둘레 나도 팬티에 뭐가 묻었는데, 동 뽀 게 아니라고 항변하기 위해서 엄마를 불렀어. 내가 안 그랬다고 (모두 웃음)

아이서 나도 '어, 이상하다. 동 안 썼는데' 생각하면서 팬티를 3번인가 갈아입었어.

아무도 난 초경을 하고 나서 엄마가 그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싫었어. 왜냐하면 모르겠지만 늦게 시작하기를 바랐는데, 초경이 빨리 온 것에 대한 굉장한 당혹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위에 하는 애들도 별로 없고, 애들이 수군거리면서 재가 생리한다, 브래지어 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아이서 애들이 다 누가 생리하는지 다 알잖아.

아무도 브래지어 하는 애들도 알고.

모르는, 근데 정/말/많/이/ 모르는

코알 남자애들은 어떻게 생리가 끝나는지를 모르더라고.

아이서 생리 혈의 양이 정규분포곡선을 그린다는 걸 모르는구나.

코알 응, 생리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생리통도 정규분포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둘레 남자애들 중에 생리 혈이 줄줄 나오는데 여자애들 화장실 어떻게 가느냐고 묻는 애들도 있더라.

로라 생리 정말 막 한번 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 남자애들도 있고.

빨간 생리 혈과 하얀 생리대

둘레 나는 생리대를 집에서 하고 나오면 땀이었어. 생리대를 어디서 파는지조차 몰랐어. 엄마가 맨날 사오니깐.

코알 난 언니 심부름하다가, 제대로 못 사워서 언니한테 맨날 혼났어. 날개나, 사이즈 이런 것이 뭔지 몰라서.

아무도 난 중등학교 때, 하루에 한 통씩 쓰고 그랬어. 쉬는 시간마다 갈았어. 난 생리 하는 게 빨간 피가 생리대에 점점 퍼져나가는 게 찜찜했어.

코알 대안 생리대 사용했는데 빨 때, 근데 색깔이 진짜 예쁘더라.

모두 오~ 맞아.

둘레 그걸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코알 물어있는 것 보면 검은 색 같은데, 물에 빨면 새빨개 가지고 알아.

로라 처음에는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몸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 왜 그걸 더럽다고 생각할까?

아무도 코피는 더럽다고 생각 안 하는데.

둘레 코피가 나는 건 오히려 자랑스럽지. 공부 많이 했다고.

로라 팬티에 묻었을 때는, 뜨거운 물로 막 물에 헹구면서 보지도 않았어.

코알 그거 차가운 물로 해야 돼. 뜨거운 물에는 단백질이 응고돼.

아이서 그냥 미지근한 물 정도어도 돼.

둘레 그리고 재생 비누로 쓰면 확실히 더 잘 자워져.

아이서 어렸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팬티에 묻고 그러면, 세안 비누로 씻고 그랬는데, 누가 그걸로 얼굴 씻는다고 생각하면 미안해서 비누 다시 막 뽀뽀 씻어 놓고, 요새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써.

월경 공결제를 준비하면서

상어 생리 결석계 설문지에 써있는 내용 보면, 생리 결석계를 공공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아. 사람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느껴.

초원 생리 결석계 설문지를 나눠줄 때 보면, 아직도 월경이라는 말을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아무도 남학생, 여학생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지 주면 '어머, 민망해~'라는 반응도 있었어.

초원 원가 피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왜 이런 말을 여기서 하느냐, 라는 느낌도.

아이서 공적인 영역에서 월경을 이야기하는 건 좀 나온 것 같은데, 생리결석계 설문지 잘 받아가고,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나 생리 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둘레 나는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 월경 이야기가 더 안 나온다고 생각해. 어떤 의미라면 정치화는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생리통으로 아프니까 결석계를 받고 싶어 하는 거지. 공적 영역에서 생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냐, 라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아이서 월경을 바라보는 시선, 구조 자체가 정말 문제덩어리인 것 같아. 월경을 임신을 못한 피가 흘러나온다고 설명하거나, 병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월경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고 정말 총체적 문제인 것 같아.

서평

내가 혼자가 아닌 그 곳 『언니네 방』

버지니아 울프는 자신의 시대에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언니네(www.unninet.co.kr)에 동지를 틀고 있는 '자기만의 방'은 지금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글을 쓰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글로 담아내고 싶은 현실이자 경험이다. 언니네 회원들은 '자기만의 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많은 '언니'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또 서로 격려하는 '혼자가 아닌' 공간이라고 말한다. 다정하게 도닥이고, 때로는 속 시원하게 남성들의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크고 작은 소란을 일으켜 온 수많은 자기만의 방들이 모여 <언니네 방>이라는 이름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2003년 여름 언니네 파티의 제목처럼,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시름'을 울고 공감하고 추천하고 지지를 보냈다. '자기만의 방'은 처음 자그맣게 언니네에 자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니네의 가장 사랑받는 공간 중 하나였다. <언니네 방>에서는 일기장에 혼자서 고적이는 글보다 더 솔직하고, 성찰적인 이야기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는 '나만의 공간'이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거기에 대답하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때로 '실익은' 이야기들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말들 속에서 성장해 나가고, 투정 어린 푸념도 따뜻한 '자매애'에 힘을 얻는다. '언니네 사람들' 40여 편의 글들로 엮인 언니네 방은 지은이를 이렇게 소개한다. 언니네라는 교차로에서 마주친 많은 여성들이 '우연히'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이들을 발견하고 반가워하고, 응원하면서 '언니네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몇 년의 시간 동안 차곡차곡 언니네를 채워온 이야기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여성들의 경험에 또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여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쌓인 글들로 엮인 <언니네 방>은 여성이 여성에게 전하는 격려의 메시지, 남성들에게 보내는 따끔한 경고,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살아남기를 위한 지침들을 담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겪은 생존자의 힘겨운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회가 요구하는 '피해자다움'이 그녀들의 경험을 어떻게 가두는지 보여준다. '성추행범을 물리친 무용담'은 망설임을 용기로 바꾸는데 힘을 보태주고, '성적 모욕에 대처하는 법'의 에피소드에서는 여유롭게 '받아치



는' 전략이 발휘하는 유쾌한 힘에 웃음이 나기도 한다.

작은 에피소드에서 시작되는 언니네 방 이야기들은 열린 채로 독자에게 다가온다. 여성주의는 어떤 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경계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쉬지 않는 떨림'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언니네 방>은 그 고민의 과정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글을 읽는 이들과 쓰는 이들 모두에게 성장과 성장의 계기를 던지고 있다. 언니네 사람들의 말 걸기에 반갑게 대답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언니네 방의 초대가 제법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다.

by_ 이강

함께 언니네 방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의 초대에 응해주시겠죠?

이 글은 필자가 여성주의 저널 <열다 www.ildaro.com>에 기고했던 <언니네 방> 소개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2006 여성주의 학교 후기

여성주의로 모인 그녀들의 내공쌓기

3월 16일부터 일주일에 한번, 매주 목요일에 모임을 가졌던 '2006 여성주의 학교-여성주의 내공쌓기'가 5주간의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세미나에서는 여성의 몸, 이성애중심주의, 성폭력, 성매매, 군사주의, 어떻게 다섯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성학 공부를 하면서 '내공을 쌓는' 데에도 물론 좋은 경험이었지만, 내 이야기를 풀어줄 준비가 되어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을 주고받았던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니다.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차차 쌓여갈 내공만큼, 여성주의 학교를 통해 맺은 인연도 깊어지고 굳어지길!

4월 17일 정희진 선생님의 <공포와 성의 정치: 국가안보론> 강연에 이어 남아있는 5월 3일 정희경 선생님의 <저는 동성애자를 인정합니다>라는 권력, 6월 1일 정형욱 선생님의 여성노동 강연에서도 또 만나요.

by_ 하토

여성학교를 처음 갈 적의 설렘이 생깁니다. 분명 학교 어딘가에는 숨어있을 여성주의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두근두근했거든요. 가슴에 꼭꼭 눌러 담아놓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분노하고 기뻐하고 안타까워하고 할 때마다 무엇이든 해 나갈 힘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조금이나마 성장한 느낌마저 듭니다.

5주에 걸친 공부를 마치며 설렘은 끝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론에서 그치지 않을테니까요. 우리는 공들공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새롭고 활동을 함께 가자며 손을 쥐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by_ 자롱

여성학교에서 총 5주 동안 각 주의 주제들을 접하면서,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꼭꼭 눌러 어쨌든 나만의 비밀스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한 억압과, 내 스스로의 변명에서 벗어났다.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레즈비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고, 비밀이 아닌 사건으로 성폭력을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봐 말하지 않았던, 내 불편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미 내 안에 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시작과,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친구들과 '여성주의 내공쌓기'를 함께했다.

여성학교를 통해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즐

거움을 맛보았다. 울려 하는 기본에 눈물이 나온 순간조차 나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비밀스럽지 않은 나일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이제 내 이야기 속 분노와 답답함들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내 공이 되었다는 것에, 난 점점 내 마음이, 내 이야기가 당당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여성학교의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주제는 끝났지만, 아직 나에게 여성학교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 웃고, 울고, 떠들면서 이 들쭉날쭉 즐거운 파장을 널리 퍼트리려고 싶다. 그러니까 친구들아, 제안 함께. 우리 앞으로 누구 신경 쓰지 말고, 편한 눈치 보지 말고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 동창 동창 해보자!

by_ 우주



Illustration by kamun kizumura

침묵에 대한 의문

안젠가부터 신촌 거리를 들쭉거리게 하기 시작한 서울 여성 영화제가 올 해로 8화째를 맞이했다. 8회 여성영화제 감독 특별전의 주인공 공은 마블린 호리스였는데, 그녀의 이름이 조금 생소하다해도 여성 공동체의 유쾌한 모습을 그려낸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감독 특별전에서는 <침묵에 대한 의문>, <부서진 가을>, <안토니아스 라인>, <달려웨이 부인> 네 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데뷔 때부터 가부장적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 해 온 감독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영화는 그녀의 데뷔작인 <침묵에 대한 의문>이다.

<침묵에 대한 의문>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보는 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다. 어느 하루, 여자 세 명이 살해 혐의로 체포된다. 어느 옷가게의 남자 주인을 잔인하게 죽인 그녀들은 그 날 그 옷가게에서 본 것이 전부일 뿐,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그녀들은 모두 그 남자를 죽인 사실을 인정했고, 이것이 밝혀진 유일한 사실이다. 하지만 왜 그를, 그녀들이 죽였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그들은 묵묵히, 하지만 완강하게 침묵으로 일관한다. 제 정신은 아닐 것이라는 경찰의 판단 아래 심리 확인을 위해 여성 심리학자와의 상담이 진행된다. 심리학자와 그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서 진행되는 대화는 처음부터 평행선을 달린다. 심리학자는 간결하고 효율적인 질문으로 그녀들을 분석하려고 하지만, 그녀들의 침묵 앞에서 이는 '당연하게도' 소통될 수 없는 방식이다. 그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질문자와 대상자의 관계를 구성하는 질문자의 힘과 이에 반응하는 대상자의 힘이다. 대화를 이끌어 가고 흐름을 통제하는 이는 질문하는 자이지만, 침묵은 그 권위 자체를 외면하겠다는 확실한 의지의 표출이다. 그 앞에서 질문의 권위는 힘을 잃는다. 심리학자는 냉소로 일관하던 한 여성이 자신의 질문을 자신에게 되돌려 비웃을 때 이를 깨닫는다. 결국 질문자는 변화된 방식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분석하는 타자가 아니라 그녀들과의 동일성을 느끼면서 비로소 소통하기 시작한다. 그 날, 그 옷가게의 주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녀들이 왜 죽였는지는 것은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다. 심리학자와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플래시백으로 보여 지는 그 날 옷가게의 상황과 평소 그녀들의 삶에 관한 그녀 스스로의 서사, 그리고 주변인의 서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화상이 아니다. 평범한 여러 여성의 일상의 묘사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삶의 표피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의 일상적이고 교묘한 억압과 그에 따르는 분노, 소외감, 좌절을 포착해내게 된다. 살인사건 전후의 시간이 드러나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그녀들의 모습이 언제 어디서든 금세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살인'이라는 범죄를 추궁하며 질문을 던지는 이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상상 속의 그녀' 들은 단 한 순간의 침묵 앞에서 무의미하게 부서져버린다.

세상의 시선으로, 법의 잣대로, 의학적 지식으로 그녀들의 성격, 삶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녀들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나 그녀들은 비뚤어지지 않았다. 미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비뚤어진 것인가? 이 영화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라고 묻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뚤어진 세상을 '함께 잘 바로잡아보자'는 식의 마음을 안정시켜줄 희망도 품고 있지 않다. 영화의 마지막 법정 장면에서 남성 판사와 남성 검사의 여전한 '왜?' 라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녀들과 심리학자 그리고 다른 모든 여성들은 웃기 시작한다. 그리고 법정을 박차고 나온다. 여전히 그들의 질문은 풀렸다. 소통 불능에 관한 냉소적이고도 지독한 절망감은 영화가 끝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1982년에 만들어졌다는 영화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감독의 깊은 통찰력 때문일 것이며, 더 크게는 여전히 변화 없는 가부장적 세상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깔려있는 비웃음이 더 버섯버섯하게 씹히는지도 모르겠다.

by_ 윤희(flora-kim@hanmail.net)

공포와 성의 정치, 국가안보론, 유쾌한 뒤집기

4월 17일 본관 4층 강당에 4~5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여성주의 학교 내공쌓기를 함께 해온 이들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도 많았다.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가정 폭력과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을 읽고 그 맹렬한 문체와 날카로운 분석에 많은 문제의식과 깨달음을 얻었던 지라, 곧 듣게 될 정화진 선생님의 강연을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공포와 성의 정치' 그리고 '국가 안보론'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을 10권도 더 써야 할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이니 만큼 진지한 분위기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선생님의 열정적인 강연은 듣는 이들을 끊임없이 웃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유쾌하면서도 씩씩한 것이었다.

강연의 중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국방부에서는 security를 securitas = free from the care 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care는 근심, 걱정, 불안의 의미다. 안보를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로 보는 것이다. (그로북 안보를 중요시하는 나라, 한국에는 재밌게도 안보개념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다. 국방연구원 등에서 낸 국가안보 강화방안에 대한 논문들을 제외하고 말이다.) 그러나 여성주의 시각에서는 secure = without care, 즉 보살핌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고 해석한다. 국가는 안전을 보장한다며 사실은 내부를 통제하는 도구로 국가 안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국가는 사실 위험이 아니라 보살핌을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는 성 정치를 바탕으로 강화된다. 여성주의 언어를 제외한 군사주의를 둘러싼 기존의 담론에는 대부분 젠더 개념이 삭제되어 있지만, 여성을 대개하지 않는 군사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군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싸우기 위한 적과 지키는 주제(남성), 보호받는 객체(여성)가 있어야만 한다. 정화진의 <페미니즘의 도전> 중 '군사주의와 남성성' 글에 따르면, 군사주의는 그 자체로 성별화된 현상이며, 동시에 성별 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인 것이다.

책 10권짜리를 짧게 요약한 강연은 2시간 정도 계속 되었고, 질문 답변 후 아쉬운 끝을 맺었다. 나의 고민의 수준에서 풀어낼 수 없던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었고,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이 끝없이 들린 시간이었다.

by_ 아이서
꽃을 사랑이 넘쳐나

2006 여성주의 학교 강연회 두 번째

"저는 동성애자를 인정합니다"라는 권력

강사 | 전희경 (이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 "성폭력을 다시 쓴다" 공동저자)

일시 | 5월 3일 수요일 6시 30분

장소 | 연희관 025

문의 | 18대 총학생회 <여기, 열다> empower@yonsei.ac.kr / 02.2123.3645



2006 여성주의 학교 <여성주의 내공쌓기>는 여성의 몸, 이성애 중심주의, 성폭력, 성매매, 군사주의를 주제로 지난 4월, 5월에 걸친 세미나로 진행되었습니다. 4월 17일, 정화진 선생님의 군사주의 강연에 이어, 여성주의 학교 후속 강연회로 이성애 중심주의를 주제로 멋진 강연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이성애 중심주의, 만연한 호모포비아를 성찰하고 여성주의로 fenenergy up! 하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학내에서 5월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 흔히 아카라카와 대동제를 떠올린다. 그 속에서는, 모두가 큰 소리를 질러야 하고, 열심히 응원을 해야 한다. 주로 목소리가 큰 남학생들은 앞장서서 놀이문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문화에 어울려 놀지 못하는 사람은 배제되며, 특히 여학생들은 그 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머물기 쉽다. 그러나 모두가 웃고 떠드는 가운데서, 남성 중심적인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폭력에 대해 성찰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그러한 목소리는 즐거움이라는 '대외' 아래 묻히기 십상이다. 2006년 1월, 종전에 센터에만 한정되었던 내규를 성평등 자치규약으로 개정하면서, 아카라카, 대동제, 연고제, 그리고 학내 공동체 생활 전반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번 아카라카와 대동제는, 모두가 즐거운 공동체를 위하여, 성폭력적인 일상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는 발전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

그 날, 무슨 일이?

#1. 아카라카 후크에 벌어진 술자리. 내 옆에 앉아있는 선배의 몸이 자꾸 내 몸에 닿는 것 같아 꺼림칙하다. 테이블에 선 성폭력/성차별적인 말들, 호모포비아적인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고간다. 그들의 말은 가만히 듣고만 있기엔 너무나도 불편하기만 하다.

#2. 대동제 주점. 요리는 해야 하는데, 남자애들은 다들 어디론가 사라졌다. 결국 요리를 맡게 된 것은 나와 여자 친구들. 성별 분업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한편으론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

#3. 주점 앞을 지나다가 '미녀 향시 대가'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미녀'라는 말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론 남성만이 손님으로 묘사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순간 묘한 불쾌감과 씁쓸함이 교차한다.

위에서 말한 예는 단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축제기간 동안 성폭력적인 상황은 평소보다 쉽게 조성되지만, 이를 성

폭력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과/반/동아리 등 학내 전반에서 남성 중심적 문화는 너무나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이것은 성차별/성폭력적인 문화를 양산하는 동시에, 그러한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여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치규약에서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한다. 광의의 성폭력이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말한다(성평등 자치규약 2-1). 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인식되지 못했던 다양한 성폭력을 고집어내고, 학내의 남성 중심적 문화에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이제 입을 열자!

성폭력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축제 분위기는 그러한 목소리를 드러내기 더욱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즐겁다고 해서 반드시 나도 즐거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분위기를 켜는 비난,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며 예민한 사람쯤으로 치부해버리는 분위기가 과연 모두를 위한 것일까? 모두를 위한 공동체라면 서로 다른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제, 감추었던 불편함을 밖으로 끄집어내자. 입을 열고 나의 목소리를 힘껏 펼치는 것이다. 다들 재밌어 하는데 혼자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혼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남성 중심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인식해오지 못했던 성폭력적인 문화에 불편을 느끼며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는 것. 입을 열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모두가 즐거운 공동체를 위한 시작이 아닐까.

by_코알

여성주의로 유쾌상쾌동해하게

성평등 자치규약

'그들'만의 놀이에서 벗어나기



Illustration by 권신아

“모두가 즐거운” 대동제를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요!

- 성에 따른 역할분담을 강요하지 맙시다!
대동제, 장터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힘 쓰는 일은 남학우가, 요리는 여학우가?”라는 고정관념, 이제는 바꿔나갑시다!
-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지 마세요!
‘친밀감’의 표시라고 우기기전에, 불쾌감을 느낄 상대방을 생각하세요.
-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문제 제기했을 때, 무턱대고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행위는 분명한 2차 가해입니다.
- 이성애만이 ‘정상’이라는 것은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의 착각.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억압하는 이성애중심주의, 호모포비아에 기반한 폭언과 폭행, 대동제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조?
- 학번과 나이가 술에 대한 강권, 성폭력 사건의 문제제기 묵살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무마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상담이나 지원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총여학생회나 단대 학생회 여성주체, 학내 성폭력 상담실로 연락하세요.

총여학생회 empower@yonsei.ac.kr / 02)2123-3645
학내 성폭력 상담실 helper@yonsei.ac.kr / 02)2123-2118



Illustration by ejee